

칼럼



김 운 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거를 애도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942년 1월 9일 - 2020년 10월 25일)이 향년 78세로 서거(逝去)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인물에게 해의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크게 보도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28일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때에 모두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우울감을 받고 있는 시국을 감안하여 영결식을 4일 가족장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계, 경제계, 체육계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국민들

도 고인을 추모하였다.

삼성그룹은 현대차그룹, SK그룹, 대우그룹 등과 함께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한 개발 도상(尙上) 후진국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이끈 견인차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과 싸워 이긴 부지런하고 뛰어난 우리 국민들을 개척적으로 선도(先導)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컸던 시절에 두 동강난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보수가 진보다 편을 갈라서 진영논리로 피 터지게 싸우는 나라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데에는 기업인들의 도전과 성취가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기업이 커지면 개인의 소유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국가 강제에도 미치지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있다. 삼성그룹의 세계적인 성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 등이 수백 조의 엄청난 국부(國富) 창출과 수백만 명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등이 빛이라면, 정경 유착(癒着)과 노동조합 없는 무노조(無勞組) 경영 등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재벌 그룹들의 성장과정에

정치권, 정치 세력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특히 검찰과 국제청 등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 세력의 강압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재벌들이 정치자본 위반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조사 받고 재판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 되곤 했다.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이다.

삼성신화로 불리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건희 회장은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

영수업을 시작했다.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별세한 1987년 이후 그룹을 이끌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임원들을 소집해 신경영 선언을 통해 초일류 기업 삼성의 기틀을 닦았다. 이때 가장 유명한 말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며 제2 창업을 선언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7년 9천억이던 시가총액은 2014년 318조7천억원을 기록해 340배로 늘었고, 매출은 9조9천억원에서 338조6천억원으로 34배로 커졌다. 자산은 8조원에서 575조로 70배로 늘었고, 임직원수는 10만여명에서 42만명으로, 수출 규모는 63억달러에서 1,567억달러로 25배로 늘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3%에서 28%로 4분의 1이 넘는다. 브랜드 가치는 세계 100기대 가운데 6위로 올라섰다.

현재 삼성전자는 2분기 기준 세계 D램시장 점유율은 42%, 낸드플래시 분야는 33%로 1위이다. 2위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으니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제왕 자리에 있었던 인

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혁신의 아이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일화(逸話)와 유명한 어록은 많다. 1995년 애니콜 휴대폰에서 불량률이 10%를 넘자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애니콜 15만대를 불태운 사건은 유명하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와 '천재 한 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신경영, 인재경영, 창조경영, 위기경영, 여성 경영, 상생경영 등 거인 이건희 회장이 남긴 발자취는 크고 많다.

한 시대를 이끌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영면(永眠)을 기도드린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합시다
화재예방은 우리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구조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재예방에 소홀할수 있어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훈련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
과거 2014년 장성요양병원화재로 21명사망, 2018년 1월 밀양세종요양병원 화재로 40여명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재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려야 할때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더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